

2008년 10월 10일 금 말씀

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사진을 보고 ‘살아야겠다’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예수님은 사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살리시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살아서 활동을 하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사람들이 세계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행을 다닌다고 인생의 곤고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

나도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 한탄하다가 ‘에이 농약 먹고 죽어야겠다’ 하고 농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‘내가 너 대신 죽었는데 너가 왜 죽느냐’ 하셔서 ‘내가 다 해줄게요’ 했습니다.

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.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.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저 세상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. 나무 위에서, 산위에서 보는 동네하고 산 밑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듯이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. 그래서 신령한 자는 갔다 오는 것입니다. 내가 그 세계를 안 봤으면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.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좋습니다.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는 세계입니다. 전도 많이 해야 합니다.

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봐야 합니다. 예수님이 백 마리 양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야기 하신 것 비유이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. 평생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. 하루에 한 마리씩 잃어버리면 백일이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. 하루에 한 마리씩 들어오면 백일이면 백 마리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 한 마리를 천 마리처럼 귀하게 살피야 합니다. 하나씩 빠져나가면 아무리 채워도 인원이 똑같아 집니다. 그러면 안 됩니다.

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. 자기 나라도 빠져 나가고 싶어합니다. 그러나 가봤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가봤자 광야 땅입니다. 거기가 거기입니다. 내가 기도할 때 ‘거기가 거기다’ 가 무슨 말이라고 물어보니 ‘인생 그렇게 소원해도 가보면 거기가 거기다. 그러니 마음을 잡아야 된다’ 고 하셨습니다. 몸을 잡지 말고 마음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. 나는 어디에 있으나 마음을 잡고 삽니다.

내가 한다고 그냥 사람이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. 신경 쓰고 잘 쫓아다녀야 잘 되는 것입니다.

비염은 깨끗한 면수건 같은 것을 뜨거운 물에 적신 후 수건을 코에 대고 적당히 들이마시면 거의 다 낫습니다. 두 달쯤 계속 하면 거의 다 낫습니다. 이걸 고치기 너무 쉬운 병입니다. 몸에 냉기가 있어서 비염이 생기는 것입니다.

사람은 사상이 멋있어야 합니다.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.

전도는 잘 하는데 관리를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관리를 계속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은 밑에 다 사람을 세워 관리 조직을 해놔야 합니다. ‘너는 전도 못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주면 같이 관리 좀 해달라’ 고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. 그렇게 하면 잘 됩니다. 모델들은 전도를 잘 합니다. 얼굴이 간판이니까 자기 얼굴 보여주면서 전도를 잘 합니다. 그런데 관리를 못해서 놓치는 생명들이 있으니 다 찾아야 합니다.